

여성 경험의 서사와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

박완서와 공지영의 낙태 서사를 중심으로

양혜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종교학 전공
hwy031@gmail.com

- I. 머리말
 - II. 낙태 서사 부재 속 낙태 경험
 - III. 박완서와 공지영의 낙태 서사와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
 - IV. 맺음말
-

이 논문은 (재)용운장학재단의 <용운연구교수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I. 머리말

1970년대를 전후로 일었던 제2 물결 페미니즘(second wave feminism)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여권 신장을 도모하는 여성운동이 제도학문의 영역으로 확장된 것은 물론, 여성 문학의 성장 또한 가져왔다는 것이다. 리타 펠스키(Rita Felski)는 여성 운동을 통해 형성된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feminist counter-public sphere)”과 여성 문학의 역할을 중요하게 논했는데, 이는 특별히 여성이 공통으로 경험한 억압을 언어화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¹ 그가 말하는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이란, 하버마스가 이론화한 17, 18세기의 부르주아 공간 개념을 빌린 것으로서, 합리적 보편성에 기반하여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가와 구별되는 공간이 아니라, 젠더, 인종, 민족, 나이, 성적 지향 등과 같은 특수성의 입장에서 현대의 대중 매체가 양산하는 “전세계적 대형 문화(global megaculture)”의 동질적이고 보편적인 논리에 대항하는 공간이다.² 이러한 대항 공간의 대표적인 예가 여성운동으로서, 이 담론적 공간을 통해서 젠더 기반 억압을 경험한 여성들의 공통적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그러한 정체성과 소속의 형성에 여성 문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³

1 Rita Felski, *Beyond Feminist Aesthetics: Feminist Literature and Social Chan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2 Rita Felski(1989), 위의 책, 165-166쪽. 직접 인용 부분은 166쪽. 펠스키에 의하면, 하버마스는 이러한 부르주아 공적 공간의 합의 기반과 비판적 기능은 자본주의의 성장과 산업 대중사회의 발달로 와해하고,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서면서 비판적이고 식견 있는 공적 견해가 형성될 수 있는 독립적 공간은 거의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후대의 이론가들은 하버마스의 공적 공간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항-공적 공간들의 성장을 주장했는데, 이 공간은 비판적 대립 세력의 공간으로서,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에 기반하며 “다양하고 이질적(multiple and heterogeneous)”이다(p. 166).

3 Rita Felski(1989), 위의 책, 166-167쪽.

펠스키의 이러한 주장은 한국 여성 문학 논의에도 그대로 수용이 되는데, 일례로 최윤은 20세기 후반의 한국 여성 소설을 논하면서 여성 문학의 성장은 페미니즘의 성장과 맞물려 있다고 평했으며, 김보경도 1980, 1990년대의 여성운동과 여성 문학의 성장의 밀접한 관계를 주장했다.⁴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한국의 페미니즘 대항-공적 공간과 한국 여성 문학의 관계를 박완서와 공지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두 작가의 연배는 서로 다르지만, 박완서의 늦은 작가 데뷔로 활동 연대는 어느 정도 겹치는데⁵, 박완서가 한국 문학에 “김치 냄새, 된장, 그리고 부엌의 기명(器鳴)물”의 소재를 처음으로 등장시키면서 여성의 현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면⁶, 공지영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3)의 대중적 성공으로 소설을 통한 페미니즘 대중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그런데도 박완서와 공지영을 같이 논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는 두 사람의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작품 세계의 차이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현재 선행 연구로 박완서와 공지영을 제법 포괄적으로 함께 다룬 것이 있으나, 이 연구 역시 세대의 변화를 주로 추적하고 있다.⁷ 그러나 현시점에서 두

4 Ch'oe Yun, "Late twentieth-century fiction by women," in Peter H. Lee ed., *A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489-490; 김보경, 『또 하나의 문화』의 여성시에 나타난 '차이'라는 여성 연대의 조건과 가능성,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0집 (2020), 126쪽. 두 사람의 이러한 주장은 두 글이 나온 시점과 대상 독자가 다름에도 일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 1931년생인 박완서는 1970년 『나무』이라는 장편이 《여성동아》 신인 소설 공모전에 당선되면서 작가 활동을 시작하여 말년까지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했으며, 공지영은 1988년에 단편 『동트는 새벽』으로 등단하여 작가 활동을 시작하였고 중간에 공백기가 더러 있었으나, 2018년에는 장편 『해리』를, 2020년에는 장편 『먼 바다』를 발표하면서 꾸준히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의 활동이 겹치는 시기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이다.

6 박완서, 『박완서, 문학의 뿌리를 말하다』(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59쪽.

7 Yang, Haewon, *Lived Gender in the Confucian Culture of Korea: Lives of Park Wansuh(1931-2011) and Gong Jiyoung(1963-)* (Doctoral Dissertation. Claremont

사람을 함께 논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에서 여성 해방의 중요한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호주제와 낙태죄가 각기 폐지되는 과정에서 여성 문학이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에서 했던 역할의 차이와 박완서와 공지영이 보여준 특징 때문이다.⁸

2005년에 호주제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끌어내는 데에는 1980, 1990년 대의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으로서 여성운동의 성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거기에는 여성 문학의 역할도 상당했다. 박완서와 공지영도 페미니스트 소설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그 대항 공간의 담론에 참여했다. 특히 박완서의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는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의 주요 매체 중 하나인 《여성신문》의 요청으로 집필된 작품으로서,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아들 선호 관습을 제대로 폭로하며 그 관습의 제도적 기반인 호주제의 문제를 꼬집었다.⁹ 게다가 박완서는

Graduate University, 2017).

- 8 호주제는 2005년 2월에 헌법 불합치 선고 후 2008년도에 대안 제도와 함께 폐지되었고, 낙태죄는 2019년 4월에 헌법 불합치 선고 후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2020년을 넘기면서 현재 대안 법안은 없는 상태에서 낙태죄는 폐지되었다. 김선혜는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졌던 낙태죄가 되살아난 배경으로 저출산 담론을 확산시키는 보수적인 가족 이데올로기를 꼽으면서 호주제 폐지 운동과 낙태죄 폐지 운동을 연결시킨다(김선혜, 「분단사회 여성운동의 역사와 과제: 호주제 폐지에서 낙태죄 폐지까지」, 『故이이효재 교수 추모 및 재출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2021), 74쪽). 이러한 해석은 낙태죄 폐지 운동을 주도했던 여성계의 구호에서도 확인이 되면서 이 두 가지가 별개 사안이 아니라는 페미니스트 진영의 자기 이해를 보여준다(「'호주제 폐지' 이뤄낸 여성계 원로 100인, 낙태죄 전면 폐지 나섰다」, 《한겨레신문》 2020년 9월 27일자(www.hani.co.kr/arti/society/women/963810.html). 최종검색일 2021년 3월 15일); 성과재생산포럼 기획, 『베를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후마니타스, 2018), 앞날개 참조). 또한 성감별 낙태가 호주제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던 관습으로 보아도 한국 사회에서 호주제와 낙태죄는 별개 사안으로 보기가 힘들다. 각주33 참조.
- 9 김효선,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여성신문》, 2011년 1월 28일자(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70). 최종검색일 2021년 3월 15일).

여성들의 대항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또 하나의 문화』 주최의 여성 문학 관련 좌담에 1987년과 1992년, 두 차례나 참가하여 페미니스트 학자 및 작가들과 함께 토론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1980, 1990년대의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에서 여성 문학의 활발한 역할을 확인해준다.¹⁰ 그러나 한국의 가부장제에 대한 이러한 포괄적 대항 담론 속에서도 낙태에 대한 페미니스트 담론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호주제 폐지 이후 다시 한번 여성 단체들의 집결이 요구되었던 2010년대의 낙태죄 폐지 운동에서는 낙태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의 논의는 있으나 그 경험을 다루는 동시대 여성 문학의 역할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박완서와 공지영의 과거 글이 2010년대에 소환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엇박자의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서 먼저 2010년대 한국의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의 낙태 담론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박완서와 공지영이 인용되는 방식을 논한 후, 박완서와 공지영의 낙태 서사를 분석하면서 여성에게 낙태란 어떤 경험으로 서술되는지를 파악하는 한편 그 경험을 말하는 장으로서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과 여성 문학의 관계를 짚어보려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음말을 대신하여, 정치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 문학의 필요성과 향후 한국 여성 문학과 페미니즘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 글로벌 번역 문학의 관점에서 한국 여성 문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간략히 언급하고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10 고정희·김숙희·박완서·엄인희·조옥라·조혜정·정진경·조형, 「페미니즘 문학과 여성운동」, 『또 하나의 문화』 제3호(1987) 14-29쪽; 박완서·박혜란·조혜정·김혜순·장필화·박일형·김성례, 「살아남기 위한 말, 살리기 위한 말」, 『또 하나의 문화』 제9호(1992), 23-51쪽.

II. 낙태 서사 부재 속 낙태 경험

성과재생산포럼 소속 연구자 이유림도 지적하듯,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는 1953년부터 존재했지만, 인구 조절에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용되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사실상 낙태를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¹¹ 이러한 현실은 박완서와 공지영의 소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박완서의 「그 가을의 사흘 동안」(1980)의 여주인공은 낙태만 전문으로 하는 산부인과 병원의 의사이지만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었고, 『서 있는 여자』(1985)의 여주인공 연지는 남편 모르게 혼자 산부인과를 찾아가 낙태를 했고, 공지영의 『봉순이 언니』(1994)에 나오는 봉순이 언니는 임신 8개월 무렵의 말기 낙태 시술도 받았다. 이 소설만 본다면 한국에 낙태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기 힘들 것이다. 나아가서 박완서는 「꿈꾸는 인큐베이터」(1993)와 『아주 오래된 농담』(2000)에서 성감별 낙태도 다루었는데, 분명 뒤흔힌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법의 저촉을 받는 행위라는 인상은 받을 수 없다. 즉, 성감별 낙태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범법 행위라는 인상은 주지 않는다. 이 소설들을 통해 접하는 한국 사회는 임신 초기 낙태는 물론이고, 임신 말기 낙태 및 성감별 낙태도 법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현실은 2006년도에 나온 양현아의 연구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한국의 연간 낙태 건수로 보았을 때 “우리 사회는 가히 ‘낙태천국’이라”할 만한데, “낙태로 인해 한국에서 형사법에 의해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희소하다”라고 지적했다.¹²

11 이유림, 「낙태죄를 정치화하기」, 성과재생산포럼 기획,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후마니타스, 2018), 41쪽.

12 양현아, 「여성의 임신중결권리의 필요성과 그 함의」, 『생명윤리』 제7집 1호(통권

이러한 상황에도 한국에서 여성주의 낙태 담론이 거의 없었던 원인을 양현아는 두 가지로 추정했는데, 하나는 생명존중 담론의 지배이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낙태는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 개정이나 사회 운동의 의제로 부상할 동력이 없었다는 것이다.¹³ 전자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후자는 적실한 지적인데, 실제로 페미니즘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사문화된 것으로 알았던 법이 사실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소위 2010년의 “낙태 고발 정국”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전환은 국가가 가족 계획 정책에서 저출산 대책 정책으로 방향을 틀고, 그에 더해 프로라이프 소속 의사들이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을 고발하면서 시작이 되었다.¹⁴ 이러한 사태의 전환으로 더는 낙태가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법 개정을 위한 사회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한 것이다.¹⁵

그러나 이때 생산된 대부분의 논의는 법과 정책에 대한 것으로서, 2010년의 시점에서 1980년에 나온 박완서의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을 분석한 김미경은 낙태 문제에서 여성 주체의 서사가 사라졌다고 지적하고¹⁶, 시공

제13호)(2006), 16쪽.

13 양현아(2006), 위의 논문, 16-17쪽. 직접 인용 부분은 17쪽.

14 이유림(2018), 앞의 글, 41-42쪽. 직접 인용 부분은 41쪽.

15 페미니스트 진영의 의제는 단지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과 재생산을 아우르는 여성의 몸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로 이 문제를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양현아(2010)는 재생산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재생산권이란 개인의 혼인상태, 연령, 계급 등과 상관없이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임신 종결을 비롯한 재생산활동에 대한 자유권적 권리이자 출산 이후 건전한 양육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까지를 포괄하는 사회권적 권리이다”(양현아,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점: 생명권 대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한국여성학』 제26집 제4호(2010), 68쪽).

16 김미경, 「낙태 담론과 페미니즘 욕망의 문학적 형상화: 아이헝어의 『거울이야기』와 박완서의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을 중심으로」, 『혜세연구』 제23집(2010), 185-

을 뛰어넘어 여성들만의 특수한 경험을 말할 수 있는 여성의 언어와 여성적 글쓰기를 모색할 필요를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페미니스트 공적-대항 공간에서 여성 문학의 역할을 환기한다.¹⁷ 이러한 언어의 부재는 낙태 논쟁에 비중 있게 참여하는 양현아와 백영경도 인정한 바로서, 양현아는 여성에게 낙태의 경험은 있지만, 그것을 재현할 상징적 질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언어의 막다른 길(*impasse*)에 놓여져 있다”라고 표현했다.¹⁸ 그리고 백영경은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낙태 논쟁이 법과 정책의 언어로 점철되면서 여성의 경험은 오히려 묻히는 현상을 지적한다.¹⁹ 이는 앞서 논한 대로 1980, 1990년대의 한국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에서 여성의 경험을 말하는 여성의 언어에 대한 논의가 여성 문학과 연결하여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것과 대조적이며, 미국 사회에서 낙태 문학 서사가 낙태를 말할 수 있는 여성들의 공간을 마련해주었다고 보는 것보다 대조적이다.

메그 질레트(Meg Gillette)는 낙태가 불법이던 20세기 초의 미국에서 낙태를 다룬 문학 서사들이 1960년대의 낙태법 개정 운동에 언어와 수사학을 제공해줌으로써 개인의 경험을 공통의 경험으로 만들고 나아가 정치적 의제로 만들 수 있게 해주었다면서²⁰, 1969년 3월 21일에 300명의 청중을 모은 첫 “공개적 낙태 말하기 대회(*public abortion speak-out*)”의 공적을 20세기 초반에 축적되어 온 낙태 서사로 돌린다.²¹ 질레트의 이러한 주장은

202쪽.

17 김미경(2010). 위의 논문, 199쪽.

18 양현아(2006). 앞의 논문, 18쪽.

19 백영경, 「성적시민권의 부재와 사회적 고통: 한국의 낙태 논쟁에서 여성 경험의 재현과 전문성의 정치 문제」, 『아시아여성연구』 제52집 제2호(2013), 43-71쪽.

20 Gillette, Meg, “Modern American Abortion Narratives and the Century of Silence”,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Vol.58 No.4(2012), p. 667.

21 Gillette(2012) 위의 논문, 663-664쪽, 667쪽. 직접 인용한 부분은 663쪽.

펠스키가 논한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의 개념을 확인해주는 것으로서, 제2 물결 페미니즘 운동에서 중요한 의제 중 하나였던 낙태가 어떻게 낙태 문학을 통해 정치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²² 그러나 낙태와 관련하여 문학 서사와 여성 경험의 유기적 관계가 부재한 한국의 상황에서 그와 흡사한 말하기 대회를 찾는다면 아마도 한국여성민우회에서 2013년에 발간한 낙태경험사례집 『있잖아…… 나, 낙태했어』일 것이다.²³ 그런데 놀랍게도 20대에서 50대 여성 25명의 낙태 경험을 담고 있는 이 사례집의 포문을 여는 것은, 2001년에 공지영이 『공지영의 수도권 기행』이라는 여행기에서 고백한 낙태 경험이다.

그것이 놀라운 이유는 공지영의 낙태 고백은 “생명을 죽이는 일은 죄”라는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이루어진 고백인데²⁴, 그것을 인용한 한국여성민우회는 낙태죄 폐지 운동을 선도한 여성 단체로서 정치의 장에서 가톨릭교회와 대립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세히 논하기에 앞서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인용한 글과 공지영의 원문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나 역시 낙태의 경험이 있고 나 역시 그때 아직 어렸다. 임신 판정을 받고 거리를 배회하면서 흘렸던 눈물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 거리에 작열하던 태양,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던 길거리에 혼자 서서 하늘을 향해,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멍청하게 서 있던 버스 정류장에

22 양현아(2010)는 서구에서 낙태권 논의는 “가히 서구 여성주의 법학의 중심 고지”(p. 66)라고 평하는데, 그만큼 서구 페미니즘 운동에서 여성의 낙태권 쟁취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23 한국여성민우회, 『있잖아…… 나 낙태했어』(다른, 2013). 이 사례집은 앞서 인용한 백영경(2013)이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들과 진행한 인터뷰를 편집한 것으로서, 인터뷰 참가자들은 앞의 각주 25의 백영경의 연구 논문의 인터뷰 사례와 동일하며, 단 이 단행본의 경우 3명의 사례가 더 추가되었다.

24 공지영, 『공지영의 수도권 기행』(오픈하우스, 2009[개정신판]), 93쪽.

서의 기억도 선연하다. [...] 죄의식 없는 낙태를 나는 반대하지만 죄의식 과잉으로 한 인간을 평생 떨게 만드는 일에도 나는 반대한다. 하지만 그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여자들의 인권이나 사회 제도적 불평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²⁵

사례집에서 인용한 부분은 여기까지이지만, 원문에서는 바로 이어서 다음의 글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어떻게든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생명을 죽이는 일은 죄라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 다만, 누구와 누구의 생명이 그 삶의 과정과 함께 어떻게 지켜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나는 아직도 그 답을 모른다.²⁶

우선 공지영이 “여자들의 인권이나 사회 제도적 불평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부분은 다분히 페미니스트적이며 따라서 그가 말하는 “그 사이에 공간”은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지영이 이 고백을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의 맥락에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고백이 실린 여행기를 위한 기획 제안이 마침 자신이 18년 간의 냉담 생활을 마치고 가톨릭교회로 돌아온 시점에 들어온 것에 그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심지어 개정판 서문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18년 만에 가톨릭교회로 돌아왔는지 제법 상세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²⁷ 즉 그는 자신의 낙태 고백이 기록된 책을 명백히 종교적 회심의 맥락에 위치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지영의 낙태 고백은 페미니스트적 고백

25 한국여성민우회(2013), 앞의 책, 8쪽.

26 공지영(2009), 앞의 책, 93쪽.

27 공지영(2009), 위의 책, 26-30쪽, 7-17쪽.

이러기보다는 기독교의 회심 서사의 한 갈래로 보는 게 더 적합할 것이다. 그가 낙태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나아가서 그는 2008년에 지승호와 했던 인터뷰에서도 자신은 낙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며 그래서 자신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했다.²⁸

그런데도 한국여성민우회가 공지영을 인용한 이유를 추정해 보자면, 연간 약 20만 명이 넘게 낙태를 한다는데 자신의 경험을 말해줄 여성 10명을 찾는 데도 3주 가까이 걸렸다는 말로 그 어려움을 토로한 편집진에게²⁹, 공인으로서 공개적 지면에 자신의 낙태 경험을 고백한 공지영의 행위는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에서 그 경험을 언어화한 행위로 여겨졌을 수 있다. 비록 공지영의 말할 용기가 그의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그토록 말하기 어려운 경험을 공적 공간에서 말했다는 것 자체를 페미니스트 행위로 보았을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적어도 여성의 낙태 경험과 관련하여 한국의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은, 종교가 배제된 공간으로 이해되는 기존의 공적 공간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볼 직하다. 하버마스가 논한 공적 공간에서 말할 자격은 종교도 전통도 사회적 특권도 아닌 합리적 이성 근거해 주어진다면, 펠스키가 논한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에서 말할 자격은 여성의 억압된 경험에서 주어진다.³⁰ 그러나 공지영의 말할 자격은 자신이 낙태한 지 거의 20여 년이 흐른 후 종교적 공간을 통해 주어졌다.

그런 면에서 박완서가 「그 가을의 사흘 동안」에서 낙태한 여성의 말

28 공지영·지승호, 『괜찮다, 다 괜찮다: 공지영이 당신께 보내는 위로와 응원』(알마, 2008), 243쪽.

29 한국여성민우회(2013), 앞의 책, 11쪽.

30 Felski(1989), 앞의 책, 165-166쪽.

못 할 심정이 통곡으로 쏟아지는 공간을 교회로 잡은 것은 인상적이다. 그것은 마치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에서도 담아내지 못하는 여성의 경험이 마지막으로 향할 공간은 꼭 언어가 아니어도 되는 종교의 공간이 아닐까 하고, 문학 서사를 통해 던지시 주장하는 것으로도 읽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 여성에게 낙태는 애초부터 여성의 다른 경험들과 달리 페미니스트 정치의 공간에서 담론화될 수 없는 성격의 경험인지도 모른다. 적어도 그 경험의 상당한 부분을 상실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말이다. 양현아가 “한국에서 낙태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한 것은³¹ 바로 그 점을 은연중에 지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박완서와 공지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서사로 한국 사회의 낙태를 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박완서와 공지영의 낙태 서사와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

본 절에서는 박완서의 「꿈꾸는 인큐베이터」, 『아주 오래된 농담』, 「그 가을의 사흘 동안」,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그리고 공지영의 『착한 여자』(1997)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려 하는데, 지면상 작품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논하기보다는, 서로 연결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다. 사실 공지영은 낙태를 주제로 하는 소설을 쓰지는 않았다. 앞서 논했듯, 낙태에 대한 그의 생각은 소설보다는 인터뷰나 여행기를 통해서 직접 표명되었다. 그러나 낙태는 곧 재생산의 문제라고 페미니스트 진영에서도

31 양현아(2006), 앞의 논문, 15쪽.

표명한 것처럼, 세 번의 이혼을 경험하며 성이 다른 세 아이를 키운 공지영은 어머니가 되는 방식에 대한 여성의 선택을 『착한 여자』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 한편, 박완서의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도 낙태 문제를 다룬 소설은 아니지만, 『착한 여자』와 마찬가지로 여주인공이 낙태가 답인 것 같은 상황에서 낙태를 택하지 않음으로써 낙태를 재생산권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보게 해주기 때문에 함께 살펴본다.

1. 성감별 낙태의 부도덕성

박완서의 「꿈꾸는 인큐베이터」가 성감별 낙태를 직접적으로 다룬 소설이라면, 『아주 오래된 농담』에서 성감별 낙태는 여러 사건 중 하나이다. 『아주 오래된 농담』에서 성감별 낙태를 하는 여자는 남자주인공의 아내 수경인데, 수경과 「꿈꾸는 인큐베이터」에서 성감별 낙태를 하는 여주인공 ‘나’의 차이는 ‘나’가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리다시피 해서 성감별 낙태를 했다면, 수경은 스스로 결핌을 느껴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물론 수경의 선택이 완전히 자발적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수경이 성감별 낙태를 하겠다고 결심하기까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달된다.

차라리 구박이라도 했으면 오기로라도 있는 딸이나 잘 기를 생각하지, 그런 짓 안 할 거라는 거야. 구박은커녕 이 세상에 아들 딸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사는 남편도 싫고, 다만 그것 때문에 시집 식구한테 기를 못 펴고 꼭 쥐어사는 것도 너무나 굴욕적이어서 하는 데까지 해볼 결심을 했다고 하더군.³²

32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실천문학사, 2000), 274쪽.

수경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아들을 못 낳는다고 직접 구박하는 사람은 없지만 은근한 압박은 느꼈고, 그래서 마흔이 넘는 나이에 아들을 낳기로 작정하고 두 차례의 낙태를 거쳐 마침내 아들을 얻는다. 반면에 「꿈꾸는 인큐베이터」의 ‘나’는 첫 아이를 낳은 후 좋지 않은 시기에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어 한 차례 시어머니 몰래 낙태를 했고 첫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기 위해 무한정 출산할 수는 없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손에 끌려 한 차례 여아 낙태를 한 후 아들을 낳는다. 1993년에 발표된 「꿈꾸는 인큐베이터」와 2000년에 발표된 『아주 오래된 농담』의 차이는 바로 그 점일 것이다. 즉 아들에 대한 선호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딸에 대한 가시적인 차별은 하지 않게 된 것이다.

「꿈꾸는 인큐베이터」에서도 묘사가 되지만, 유치원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훨씬 많다는 것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인공적인 조절이 있을 거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그래서 1987년에는 태아의 성을 알려주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생겼다.³³ 여아 성감별 낙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하나로서, 한국 사회에서 성감별 낙태를 말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두 소설에서도 보듯, 남성들의 묵인 혹은 무관심 속에서 시어머니의 주도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완서는 단편 「해산 바가지」(1985)에서도 며느리에게 성감별 낙태를 시켜서라도 손자를 보고 싶어 하는 시어머니

33 양현아, 「의료법상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사회과학적 의견」, 『서울대학교법학』 제50집 제4호(2009), 3쪽. Heeran Chun and Monica Das Gupta, “Gender discrimination in sex selective abortions and its transition in South Korea”,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Vol. 32(2009), pp. 89-97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출생시 성비 불균형이, 세계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그 정도가 심하지만, 그래도 줄어들기 시작했다(p. 93). 또한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1985년에 48%였다면, 2006년에는 10%로 줄어들었다(p. 94). 이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호주제 폐지와 같은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의 변화를 꼽는다.

를 등장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시어머니들의 의지, 그리고 거기에 공모했다고 느끼는 「꿈꾸는 인큐베이터」의 ‘나’는 모두 가부장제의 피해자이기만 한가에 대해서 박완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진 듯하다. 이는 가장 근래에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에 큰 반향을 일으킨 문학으로 꼽히는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2016)이 성감별 낙태를 언급하는 방식과의 차이에서 알 수 있다.

김지영 씨의 어머니가 그의 여동생을 ‘지운’ 것에 대해서 조남주는, “아무 것도 어머니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모든 것은 어머니의 책임이었고”라고 묘사하고 넘어가는 데에 반해서³⁴, 박완서는 이 행위에서 여성이 달리 선택할 가능성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꿈꾸는 인큐베이터」의 ‘나’는 “그렇게 간악한 짓을 저지르기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그 께름칙함을 떨쳐버리”기 위해 “어떡하든지 달라져야 한다”라고 다짐한다.³⁵ 그런데 ‘나’가 달라지려 하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이다.³⁶ 박완서는 어머니에게서 딸로 대물림되는 한국 사회의 남아 선호 문제를 소설에서 정확하게 지적하면서도, 다른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나’ 스스로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개인적으로 달라져야 함을 강조한다. 아들을 무조건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니 세대의 행위가 그들의 “도덕관념”이라면³⁷, ‘나’의 도덕적 선택은 거기에 공모한 잘못을 깨닫고 달라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조남주가 김지영 씨의 어머니가 아무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감별 낙태를 하고 “맹수에게 새끼를 잃은 동물처럼 울부짖”었다고 표현함으로써 억압의 피해자로서 여성의 모습을 극대화했다면³⁸, 박완서의 ‘나’는

34 조남주, 『82년생 김지영』(민음사, 2016), 29쪽.

35 박완서, 「꿈꾸는 인큐베이터」, 『93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4』(현대문학, 1993), 72쪽.

36 박완서(1993), 위의 책, 72쪽.

37 박완서(1993), 위의 책, 72쪽.

38 김지영(2016), 앞의 책, 29쪽.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며, 그 모습은 마지막 장면에서 “돌아가야 할 도시를 뒤로 하고” 계속 차를 모는 ‘나’로 형상화된다.³⁹ 김경희는 박완서의 이러한 서사 장치에 대해서, 이 소설은 페미니즘 담론 너머의 한국적 현실을 직시한다며, “‘나’는 여자도, 한국인도 아닌 인간으로 살기 위해, 자신이라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⁴⁰ 이처럼 “자신이라도 변화해야 한다”는 개인적 도덕성은 『아주 오래된 농담』에서도 볼 수 있다.

『아주 오래된 농담』에서는 「꿈꾸는 인큐베이터」와 달리 성감별 낙태의 부도덕성이 그 행위를 한 당사자의 자각이 아닌, 다른 여성의 입을 통해서 지적되는데, 그 여성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같은 유교 문화에서 가장 부도덕하게 여기는,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자 현금이다. 현금은 수경의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외도 상대로서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는 이혼녀인데, 가임기가 끝날 무렵의 나이에 달하자 문득 아이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마침 그때 만나는 상대 남자였던 수경의 남편이 마음에 들어, 몰래 그와의 임신을 시도한다. 현금은 임신이 쉽지 않은 나이라서, 그리고 수경은 아들을 임신하기 위해서, 서로 다니던 불임 클리닉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수경의 정체를 알게 된 현금은 그의 성감별 낙태 행위가 매우 부도덕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수경의 남편을 더는 만나지 않기로 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런 수경이를 보면서 난 무지 헛갈렸어. 그 부도덕한 짓을 보면서 처음으로 너와 나의 관계를 도덕적인 눈으로 보게 됐으니 신기하잖아. [...] 끌리는 남자하고 자는 데 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거든. [...] 난 그게 내가 도달한 최고의

39 박완서(1993), 앞의 책, 72쪽.

40 김경희, 「꿈꾸는 인큐베이터의 담론 분석과 의미 해석」, 『비평문학』 제32집(2009), 69쪽.

경지,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구. 그 착한 여자에게서 남편을 빼앗는 건 옳지 못한 짓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지. [...] 엉뚱하게도 가장 부도덕한 짓거리를 보고 나서 내 도덕심이 움직였으니 헛갈리지 않고 배겨. [...] 그래서 내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그런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여자하고 한 남자를 공유하기 싫다 이거야.⁴¹

여기에서 현금은 수경을 “착한 여자”라고도 부르고,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여자”라고도 부르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가족들 몰래 병원을 드나들며 알아서 아들까지 낳아주는 수경은 분명 ‘착한 여자’다. 유교적 가부장제의 순응자든 피해자든 그는 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금은 결과적으로 그를 부도덕한 여자로 보기로 하면서, 그와는 구분되는 자기만의 도덕적 선택을 한다. 현금의 이러한 결정은 한국문화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정숙한 여자와 문란한 여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뒤바꾸는 것인데, 이어서 살펴볼 「그 가을의 사흘 동안」에서도 박완서는 그러한 일반적인 판단을 뒤집는다.

2. “죽을병”으로서 임신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은 한국전쟁 중 강간을 당해 임신하고 낙태한 경험이 있는 한 여의사가 서울 변두리에 낙태만 전문으로 하는 산부인과 병원을 차리고 거의 30년간 영업을 하다가 지역 재개발 때문에 병원 문을 닫기 전 사흘간의 이야기이다. 그의 병원에는 근처 성매매 집결지의 여성은 물론, 국가의 가족 계획 정책과 소자녀 핵가족화의 흐름으로 낙태를 거의

41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실천문학사, 2000), 275-276쪽.

피임처럼 사용하는 동네의 주부들도 단골로 찾아온다. 주인공은 의사답게 자신의 의술이 필요해 찾아오는 여자들에게 그들의 신분과 상관없이 시술 해주는데, 그는 “상식적으론 창녀의 것은 더럽고 정숙한 여자의 것은 깨끗한 걸로 돼 있지만 육안을 통한 관찰에 의하면 그와 정반대”라며, “자기의 그곳이 가장 정숙하다고 믿는 여자일수록 그곳의 불결에 파렴치하다”라는 말로, 『아주 오래된 농담』의 현금처럼 일반적인 문화적 가정을 뒤집는다.⁴² 아래는 이러한 뒤집기가 좀더 체계적으로 나열되는 대목이다.

홀로 사는 여자보다는 더불어 사는 여자가 아름답다고, 더불어 살되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만 낳는답시고 소파를 열두 번도 넘어 했으되 그래도 아들 딸이 서넛은 되는 여자가 훨씬 더 아름답다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는 서방이 수없이 있으면서도 평생에 연애 한번 해보기가 소원인 창녀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는 도망간 창녀가 죽자사자 연애하던 남자를 따라갔대서 찾지 않기로 마음먹은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포주라고, 마치 고정관념을 허물어 거꾸로 쌓듯이 그렇게 생각했다.⁴³

주인공이 나열한 여자들은 홀로 사는 여자에서부터 여자들의 몸을 자본 삼아 돈을 버는 포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그 아름다움의 순서는 오히려 거꾸로다. 이 여자들을 성 경험을 중심으로 본다면, 홀로 사는 (순결한) 처녀보다는 그래도 가정을 꾸린 여자가 낫고, 가정을 꾸리되 너무 모범적으로 정부 시책과 문화적 규범에 맞춰 사느라 낙태를 여러 차례 한 여자보다는 더러 실수하면서 사는 여자가 낫고, 그보다는 아직도 연애를 믿는 창녀가, 그리고 그보다는 연애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용기를 내는 창녀가, 그리고

42 박완서, 『그 가을의 사흘 동안』(나남문학선 8. 나남, 1985), 244쪽.

43 박완서(1985), 위의 책, 253쪽.

그보다는 그런 여자를 너그럽게 보기로 마음먹은 (여자) 포주가 더 아름답다는 역전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문란할수록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소설에서 주인공의 이러한 시각은 그녀의 심리 상태와 연결이 되는데, 시종일관 냉소적인 주인공의 자세와 어투는,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회에 대한 혐오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 발버둥을 치는 자기혐오를 반영한다. 그는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받은 치가 떨어지는 박해의 기억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에게 분배함으로써 나만의 억울함을 덜어 보려” 하지만, 끝내 “아무리 남을 비참하고 추악하게 만들어 놓고 비교해도 역시 내가 더 비참하고 추악”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⁴⁴

여기에서 주인공이 말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받은 박해는 곧 강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소설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방점은 강간이라는 폭력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임신이다. 즉 강간의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처녀가 섹스한 사실이 밝혀질 때의 사회적 시선이며, 그 시선은 동의에 의한 섹스와 강제에 의한 섹스를 구별하지 않을 만큼 가혹하다. 이는 여의사가 강간을 당하고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한 것은, 강간당한 사실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임신을 통해 (비록 그것이 강제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섹스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창피해서가”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걸 죽이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죽는 거니까 죽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⁴⁵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처녀의 임신이 여러 차례 “죽을병” 혹은 “몸쓸 병”으로 일컬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처녀의 성을 허용하지 못하는 문화적 금기의 반영이다. 그래서 병원을 처음 개업한 날 건물주인 황씨가 결혼하지 않은 자기 딸이 만삭의

44 박완서(1985), 위의 책, 251-252쪽.

45 박완서(1985), 위의 책, 259쪽.

몸으로 진통을 하는 것을 두고도 병세가 위급한 “몹쓸 병”이라고 하고⁴⁶, 병원이 문을 닫는 마지막 날 임신 말기의 소녀가 낙태해달라며 찾아와서도 자신은 절대로 남자와 자지 않았으며, 임신이 아닌 다른 “죽을병”에 걸린 것이라고 항변한다.⁴⁷

강간의 폭력까지 덮어버리는 이러한 억압적 문화 속에서, 주인공의 저렴하고 깔끔한 낙태 시술은 분명 그 여성들을 고통에서 해방해 주는 행위이다.⁴⁸ 그런데도 그 동네에 늘어나는 교회에 새벽마다 몰려들어 울며 기도하는 여신도들이 많은 이유를 여주인공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한 건 나인데, 또 무슨 고통이 있어서 새벽부터 교회로 몰려가 서럽게 통곡하는 것일까? 그러나 자기 안에도 “딱딱하게 굳은 한 덩어리의 통곡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게 하는 것도 바로 저 새벽의 울음소리이다.”⁴⁹

주인공은 그 신도들이기도 한, 자기를 찾아오는 동네 중산층 주부들의 빈번한 낙태에 대해서 제법 경멸의 시선을 보내는데, 처음에는 피임법을 물어오는 여자들에게 성실하게 상담해주고 도표나 기구도 나누어 주었지만, “이 동네 여자들은 맨날 가르쳐야 한글도 못 깨치는 저능아처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고 제법 신랄하게 말한다.⁵⁰ 사회의 손가락질 없이 성생활을 할 수 있는 여자들이 좀 더 자신의 몸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결국 그는 대립을 멈추고 그들과 한 무리가 되어 교회로 향한다. 30여 년간 낙태 시술만 해온 자신이 정말로 바라던 일은 아기를 받아보고 싶고 아기를 가져보고

46 박완서(1985), 위의 책, 230쪽.

47 박완서(1985), 위의 책, 257-258쪽.

48 박완서(1985), 위의 책, 244쪽.

49 박완서(1985), 위의 책, 245쪽.

50 박완서(1985), 위의 책, 252쪽.

싶다는 것이었다는 거를 깨달은 그는, 말기 낙태로 세상에 나와 잠시 숨을 쉬다 간 아이를 신생아처럼 안고 그를 위해 무덤을 만들어 그 위에 채송화씨를 뿌리고 그 아기와 “내가 죽인 수많은 아기”를 애도할 생각을 한다.⁵¹ 그리고 “작은 아기와 모든 신도들의 울음 위로 범람할 것 같은 큰 통곡을 품고” 교회로 향한다.⁵²

김미경은 이 소설을 페미니즘적으로 읽으면서, “페미니즘의 욕망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며, “삶을 쟁취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며 의지”라고 해석하는데⁵³, 살아야 했을 생명이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주인공과 신도들의 애도는 그러한 삶의 욕망 이면으로 읽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그들이 모이는 공간이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이 아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인상적이다. 여기에 특별히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1970, 1980년대에 아파트 단지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던 교회들은 생활 공간에 가까이 있어 접근성이 좋았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1980년대 중반 무렵부터 불교에서도 낙태한 태아를 위한 애도의 공간을 천도재를 통해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낙태가 자유로웠던 시대에 여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페미니스트 정치 공간이 아니라 애도의 공간이었다는 것을 시사하는지도 모른다.⁵⁴ 남성 작가의 작품이지만 1993년에 나온 최인호의 「山門」에서 낙태한 태아를 위해 천도재를 드리는 여인에 대한

51 박완서(1985), 위의 책, 263쪽.

52 박완서(1985), 위의 책, 263쪽.

53 김미경(2010), 앞의 논문, 199쪽.

54 우혜란, 「“낙태아 천도재”와 여성」, 『종교와 문화』 제17집(2009), 133-173쪽 참조. 우혜란은 여성주의 관점에서 천도재를 다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이 의례를 찾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담고 있지 않다. 그가 이 연구를 위해 인터뷰를 한 시점에서 천도재를 찾는 여성들은 주로 나이가 많은 기혼여성이라고 했는데, 몇 십년 전에 자신이 한 낙태 행위에 대해서 천도재를 드리는 것과 낙태를 행한 무렵의 시점에서 천도재를 드리는 것의 의미는 다를 것이므로, 여성주의적 비판도 행위자 입장의 의미 구성을 고려하면서 해야 할 것이다.

묘사는 「그 가을의 사흘 동안」에서 교회로 모여들어 통곡하는 신도들의 모습과 어렵지 않게 겹쳐진다.⁵⁵

3. 선택은 가능한가?

낙태 서사가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서사라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박완서와 공지영의 소설에서는 세 가지의 가능성이 그려진다. 먼저 「그 가을의 사흘 동안」에서 주인공의 첫 환자이자 이례적인 분만 환자가 된 건물주인 황씨의 딸이다. 황씨는 자기 딸이 겁탈을 당했다고 하지만, 딸이 출산한 그 아이를 황씨의 업둥이로 만들면서 황씨는 전쟁으로 상처하고 노모는 노환으로 죽고 두 아들은 납북되어 외동딸 하나만 있었다 - 겁탈당한 사실이 비밀리에 부쳐지자 황씨의 딸은 자기가 낳은 아이에게 누나 행세를 하면서 극진히 길러낸다. 이러한 설정은 황씨의 딸이 정말로 겁탈을 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게 하고, 그만큼 처녀의 성은 겁탈이든 연애든 금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황씨의 딸이 낳은 아들이 황씨의 업둥이가 되면서 그 딸은 동생 돌보듯 자기 아들을 키우다가, 그 아들이 어느 정도 크자 다른 데로 시집을 가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신이 밖에서 낳아 온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되어 둘이 남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종의 입양이라는 형식을 통해 처녀가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기면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페미니스트 주체로서의 선택이라 보기 힘들다. 여성의 몸을 통한 출산이라는 주체적인 행위가 가부장적 문화의 편견으로 인해 부끄럽게 여겨지고 은폐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박완

55 최인호, 「山門」, 『93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4』(현대문학, 1993), 354-397쪽.

서의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와 공지영의 『착한 여자』는 그러한 가부장적 문화의 편견에 맞서는 여자의 주체적인 선택을 보여준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차문경은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자와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그 남자로부터 파혼당하고 홀로 아들을 낳아 키운다. 딸을 낳아 친구처럼 살고 싶었지만, 그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때문에 전 약혼자와 법정에서 서게 되는데, 전 약혼자가 자기 배우자와 딸을 하나 낳고 더는 출산이 가능하지 않게 되자 차문경이 낳은 아들을 자기 호적에 올리려 했기 때문이다. 결국 차문경의 승리로 끝나면서 호주제와 아들 선호라는 비틀린 한국문화에 맞서는 것이 이 소설의 큰 줄기인데, 작가는 아이러니를 더하기 위해 차문경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로 설정한다. 여자 교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은 당연히 성적 도덕성을 함의한 것인데, 결혼도 하지 않은 차문경이 점점 배가 불러오자 그는 결국 학교에서 해고를 당한다. 그러나 차문경은 자신의 아이는 “부도덕하게 생긴 아이”가 아니라며 시종일관 떳떳하다.⁵⁶ 소설에서 차문경의 도덕성은 어떻게 아이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아들을 키우느냐로 나타나는 데⁵⁷, 자기 어머니에게 휘둘리며 헐박과 거짓을 일삼는 아이의 생부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김양선은 이처럼 박완서 소설의 “부도덕한 남성과 주체적인 여성이라는 낯익은 이분법”은 주 독자층인 여성 대중에게 호소하는 대중소설의 기법이라고 분석하는데⁵⁸, 이러한 대중성 또한 1980, 1990년대의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다.

56 박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박완서 소설전집 15)』(세계사, 1999), 76쪽.

57 박완서는 이에 대해 차문경은 그 아들을 생부가 아닌 “자신이 키워야만 제대로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한다(박완서, 『박완서의 말: 소박한 개인주의자의 인터뷰』(마음산책, 2018), 50쪽).

58 김양선,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 연구: 1980년대 여성문제 소설 다시 읽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4집(16권 1호)(2012), 224쪽, 227쪽.

그러나 한 가지 이 소설에서 잘 주목되지 않는 것은 임신 중의 차문경이 보여준 만족감이다. 아직 그의 임신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기 전 그 비밀을 알고 있던 동료 교사가 불안해할 정도로 그는 태연하게 임신한 여자의 티를 내고 만족감을 드러낸다. 박완서는 이에 대해서, 여자는 “임신하고 있는 동안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감 그리고 행복감”을 느낀다며, 이것은 “여성만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감정이며 귀한 체험”으로서 “문경이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체험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했다.⁵⁹ 모성이 권리이기보다는 의무와 억압으로 주로 경험되었던 한국 여성들에게 박완서의 이러한 발언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낙태가 비교적 자유로웠던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낙태권이 아니라 모성권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지영의 생각과도 닿아있는 것으로서, 그는 『착한 여자』의 집필 계기에 대해서, “여성의 방식은 말하자면 어머니와 땅 같은 방식”이고 따라서 “‘남자 네가 하면 나도 해’하는 식의 페미니즘 구호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⁶⁰ 그는 성이 다른 세 아이를 키우면서 받았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 “내가 낳은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⁶¹ 『착한 여자』는 공지영이 두 번째로 이혼을 하고 나서 쓴 소설인데, 그 소설의 주인공 정인도 그 당시 공지영처럼 서로 다른 남자로부터 두 아이를 얻었다.

정인은 남편과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고 이혼한 후, 직장에서 알게 된 남자와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남자와 헤어지고 난 후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하지 않고 딸을 낳는다. ‘착한 여자’인

59 박완서(2018), 앞의 책, 62쪽.

60 공지영·지승호(2008), 앞의 책, 184쪽.

61 공지영·지승호(2008), 위의 책, 55쪽.

정인은 자기 주변의 여자들에게 “내가 한 생명의 엄마라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깨우쳐주고⁶², 여자들은 “여자들의 방법”을 즉, “생명을 만들고 키우는 사람들”의 방법을 써야 함을 일깨워주는 인물이다.⁶³ 나아가서 정인은 딸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향해 이 아이는 당신 딸이 아니라, “온전히 나만의 아이”라고 선언한다.⁶⁴ 정인은 “이 딸이 남자에게는 본능적이고 영원한 열등감을 건드리는 딸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는다.⁶⁵ 정인의 이러한 발언은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의 모가장의 계보를 생각나게 하는 면이 있지만, 영화와 달리 이 소설에서 이성애 중심주의는 지켜진다. 대신에, 정인이 같이 사는 또 다른 한부모 여성 인혜와 함께 꾸리는 “사람 사는 집”이라는 대안 가족 공동체는 소위 정상 가족의 틀을 벗어난 엄마 혹은 아빠들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로서, 운동권 친구들의 도움으로 꾸려진다.

모성을 긍정하고 돌봄을 끌어안는 운동권 친구들의 이러한 대안 공동체는 정영자가 지적하듯, 한편으로는 여성성을 긍정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대립보다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전환하는 측면이 있다.⁶⁶ 소설 속에서 이들이 꾸린 공동체는 강남 중산층의 지지를 받으며 가정 지키기 운동을 벌이는 보수 단체와 대립하는데, 이는 곧 그 단체의 여성들과의 대립이기도 하다. 이것은 박완서의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와 중요한 차이인데, 마지막으로 이 절을 정리하면서 그 차이를 논하도록 하겠다.

62 공지영, 『착한 여자 2』(오픈하우스, 2002), 287쪽.

63 공지영(2002), 위의 책, 339쪽, 296쪽.

64 공지영(2002), 위의 책, 300쪽.

65 공지영(2002), 위의 책, 300쪽.

66 정영자, 「90년대 여성소설의 특성연구: 양귀자, 공지영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15집(2001), 384쪽.

4.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과 여성 문학

성별 골라 낚기를 목적으로 하든 그렇지 않든, 낙태를 다룬 박완서의 소설의 공통점은 성적으로 문란한 것보다 낙태가 더 부도덕하다는 것이다. 이는 낙태보다 이혼 즉 여자가 일부종사하지 않는 것을 더 부도덕하게 여기는 한국문화의 일반적 통념을 뒤집는 것으로서, 오히려 낙태를 대하는 서구 사회의 모습에 더 가깝다. 또한 박완서의 소설에서는 여성의 연대보다는 문화적 통념에 반하는 개인의 의지적 선택이 부각된다. 앞서서도 논했듯,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 선호가 어머니 세대의 “도덕관념”이라면, 딸의 세대에게는 다른 도덕관념이 필요하고, 딸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박완서의 소설은 보여준다. 「꿈꾸는 인큐베이터」의 ‘나’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어떡하든지 달라져야 한다”라며 차를 반대 방향으로 몰았다면⁶⁷,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차문경은 “남이야 뭐라든 나는 내 아이를 행복하게 기를 자신이 있다”라고 말한다.⁶⁸ 사회적 통념이나 지탄이 어떻든,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자들을 박완서는 그리고 있다.

그러나 차문경이 오직 개인의 의지와 도덕성으로 사회의 편견에 맞선다면, 정인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지지를 받는다.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을 물리적으로 형상화한다면 정인이 만든 공동체일 수 있다. 이 공동체는 부계 혈통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이 아닌, 이혼이나 사별을 통해 홀로된 남자와 여자들의 아이를 돌보며 싱글인 여성도 연애를 꿈꾸는 여성도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그리고 자녀들을 키워내는 곳이다.

67 박완서, 「꿈꾸는 인큐베이터」, 『'93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4』(현대문학, 1993), 72쪽.

68 박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박완서 소설전집 15), 세계사, 1999, 72쪽.

한국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민주화 운동과 함께 성장했던 것을 생각하면, 정인이 만들어낸 이러한 돌봄 윤리 중심의 공동체는 남성중심적 운동권 공동체의 페미니즘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지영이 제시하는 이러한 이상적 공간은 낙태 대신에 생명을 택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박완서의 서사와 일맥상통한다. 정인이 만든 단체와 대립 관계에 있는, 강남 중산층의 지지를 받아 가정 지키기 운동을 벌이는 보수 단체의 여성들이, 박완서의 「그 가을의 사흘 동안」에서 여의사의 병원을 찾아와 젊음의 묘약이라는 소파한 태반을 먹으며 어울리는 중산층 기혼여성 단골들과 소위 속물적 부르주아라는 면에서 겹치는 인구라고 할 때, 낙태는 그들의 선택이며, 정인이 만든 공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정인이 만든 공간이 남녀의 대립이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전환하는 공간이라면, 여성 개인의 선택은 스스로 내리는 판단보다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잣대에 좌우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이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하나의 문화적 공간이 되었을 때, 혹 그 문화에서 어떤 문제가 감지되어도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을 발휘하기가 오히려 힘들 수 있다. 정치적 올바름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 정체성의 압력 때문이다. 그래서 공지영도 『착한 여자』에서 이상적 페미니스트 공동체를 상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통속적인 연애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인간사에는 정치로 환원될 수 없는 면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러한 인간을 탐구하는 문학 또한 정치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박완서의 「꿈꾸는 인큐베이터」를 현대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하면서 평론가 김윤식이 “여성 해방을 겨냥한 소설도 카톨릭 이념선전 용도 아닌 이 점을 저는 기립니다.”라고 평한 것은 새겨봄 직하다.⁶⁹ 한국

69 김윤식, 「심사평: 중편 형식과 균형 감각」, 『93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4』(현대문

여성에게 낙태가 처음부터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의 이슈가 아니었다면, 그 경험을 말할 언어는 더욱더 여성운동의 정치 공간이 아닌 문학의 공간에서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낙태 문제를 둘러싼 한국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과 여성 문학의 엇박자는 “다양하고 이질적”이어야 하는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의 성질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⁷⁰, 여성의 일상적 경험을 묘사하는 낚아스 있는 언어 또한 개발되지 못한 채 정치의 언어가 제법 공고히 자리 잡음으로써 일어난 현상이 아닐까 추측하게 한다.

이는 2013년에 나온 낙태경험사례집에서 접하는 여성들의 경험이 박완서나 공지영의 낙태 서사가 다루고 있는 여성들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혼외 임신을 했을 때, 임신하지 않았으면 자신이 혼외 섹스를 한 사실을 숨길 수 있어도 임신한 이상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극복하기 어려웠다고 하는 고백은 곧 처녀의 성에 대한 문화적 금기가 박완서가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을 썼던 1980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⁷¹ 또한 이 사례집의 여성들도 박완서 세대 못지않게 피임에 대한 지식이 얇고, 챙기려 해도 너무 그쪽을 잘 안다는 인상을 줄까 봐 꺼려졌다고도 토로한다.⁷² 이러한 상황에서 실패한 피임이 낙태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다. 그렇게 낙태를 하고 난 후에는 미안한

학, 1993), 499쪽. 김윤식의 평을 여성 문학에 대한 남성 평론가의 일반적 목소리로 읽을 수도 있으나, 적어도 박완서 자신은 김윤식과 이해의 결을 같이 하는데, 박완서는 “진짜로 좋은 문학이라면 그 자체로서 페미니즘 문학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페미니즘 문학과 여성운동」, 『또 하나의 문화』 제3호(1987), 22쪽).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좋은 문학”이란 문학 자체의 기준에서 볼 때 좋은 문학으로서, 페미니즘이라는 이념보다 문학을 상위의 범주에 두고 있다 .

70 Felski(1989), 앞의 책, 166쪽. 각주 2 참조.

71 한국여성민우회(2013), 앞의 책, 44쪽.

72 한국여성민우회(2013), 위의 책, 74-87쪽, 74쪽.

마음에 영혼을 달래줄 의식을 찾기도 한다.⁷³ 「그 가을의 사흘 동안」에서 교회를 찾는 신도들을 떠올리게 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오랫동안 고착된 성문화 속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낙태 경험이기에 2010년대의 공간에서도 과거 박완서와 공지영의 서사는 시차 없이 소환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추정하는 것이다.

IV. 맺음말

낙태죄 폐지 운동을 이끈 2010년대 후반의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에 큰 동력을 일으킨 문학 작품으로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이 꼽히고 있다. 앞에서도 잠시 논했지만, 조남주는 억압의 피해자로서 여성의 모습을 극대화했는데, 이 작품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폭발적인 대중성 그리고 1990년대의 페미니즘 소설과 구분되는 작가 자신의 페미니스트 정체성이다. 강진옥과 허윤은 공히 『82년생 김지영』의 대중적 성공을 중요하게 지적하며 드디어 정치적 행위 자체가 된 문학의 탄생을 환영하는데⁷⁴, 특히 허윤은 “여성 문학의 전성시대라고 불리던 1990년대에도 자신이 페미니스트 작가임을 표방하는 작가들은 드물었다”며,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는 여성 작가들의 탄생을 매우 의미 있게 평가하고 이들에게는 페미니즘 자체가 “소설적 세계관”이 되었다고 지적한다.⁷⁵ 나아가서 그는 소설적

73 한국여성민우회(2013), 위의 책, 102쪽.

74 강진옥, 「소설 『82년생 김지영』에 나타난 랑시에르의 ‘문학의 정치’와 그 한계」, 『정치사상연구』 제25집 제1호(2019), 181-182쪽; 허윤, 「광장의 페미니즘과 한국 문학의 정치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9집 제2호(2018), 130-131쪽.

75 허윤(2018), 위의 논문, 128쪽, 131쪽.

세계관이 된 페미니즘을 소설로서 평가하는 범주를 기존의 문학에서 페미니즘으로 확실하게 옮겨놓는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82년생 김지영』의 작품 해설은 여느 소설과 달리 문학평론가가 아닌 여성학자가 맡았다.⁷⁶

이러한 평가와 해석은 여성 문학의 가치가 그것이 가지는 페미니스트 정치의 잠재력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데, 이는 허윤이, 『82년생 김지영』보다 문학적으로 더 성숙한 작품을 쓴 작가 한강이나 천운영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지 않고 문학은 구호를 외치는 운동이 아니라고 한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⁷⁷ 페미니스트 정치가 여성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헤쳐나갈 힘을 키워주면서 여성 문학과 동반 성장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앞서 언급했듯, 정치의 집단성은 개인의 힘이기보다 무리의 힘이기에 오히려 그 집단과 다른 생각을 가질 여지를 제한할 수 있다. 일례로,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논의를 펼치는 강진옥의 글은 자칫 여성들 사이에서도 다른 견해를 가지면 가해자 남성 편을 든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인간사의 면면들을 깊이 응시하는 문학은 가능한 정치로 함몰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여성의 서사를 개발하는 여성 문학도 페미니스트 정치 공간과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여성의 삶에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공지영이 말한 죄의식 없는 낙태와 낙태로 인한 죄의식 과잉 “그 사이에 공간”도 바로 문학이 차지해야 할 공간일 것이며, 그 사이에 있는 언어들도 풍부할 때 인생을 말할 언어도 더 풍부해질 것이다.

흥미롭게도 『82년생 김지영』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금까지 일본의

76 김고연주(여성학자), 「우리 모두의 김지영」, 『82년생 김지영』 작품 해설(민음사, 2016), 179-190쪽.

77 허윤(2018), 앞의 논문, 129-130쪽.

페미니즘이 포착하지 못했던 여성들의 삶을 멋지게 대변했고, 그 여성들의 삶 곁으로 ‘다가가’ 그녀들에게 언어를 전해주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⁷⁸ 이는 여성의 경험에 언어를 입혀주는 여성 문학의 원래 소임을 환기하는데, 2010년대 페미니즘 출판의 성장도 결국 여성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무기”를 주었다는 점이 중요한 의의로 평가되는 것을 볼 때⁷⁹, 이 경험의 언어를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전시키느냐가 그것이 페미니스트 정치를 지향하느냐보다 더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82년생 김지영』이 일본에서 받는 평가의 의의는 이 작품이 오늘날 한국의 여성 문학으로서 대표성을 가져서가 아니라, 번역을 통해 타문화에 이식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효과들을 통해서 이처럼 새롭게 환기되는 부분들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 한국 여성 문학이 페미니즘과 연계되는 방식을 이해하는데에도 세계적인 맥락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는 낙태를 비롯하여 여성문제 자체가 글로벌화 하고 있고, 근래에 외국어로 번역되는 한국 문학들이 주로 여성 작가들의 작품으로서 한국 여성의 서사가 글로벌 번역 문학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번역을 통해 텍스트가 새로운 컨텍스트를 만나면서 일으키는 반향들에 대한 이해는 텍스트 자체는 물론 우리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혀주리라 생각한다.

78 후쿠시마 미노리, 『『82년생 김지영』에 열광한 일본 독자들,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문화과학』 제102집(2020), 200쪽.

79 정고은, 「2015-2016년 페미니즘 출판/독서 양상과 의미」, 『사이間SAI』 제22호(2017), 187쪽.

참고문헌

1. 문학 작품 및 작가 인터뷰

- 공지영, 『수도원 기행』. 오픈하우스, 2009[개정신판].
- _____, 『착한 여자 1, 2』. 오픈하우스, 2002.
- 공지영·지승호, 『괜찮다, 다 괜찮다: 공지영이 당신께 보내는 위로와 응원』. 알마, 2008.
- 박완서, 「그 가을의 사흘 동안」. 『그 가을의 사흘 동안(나남문학선 8)』, 나남, 1985, 223-263쪽.
- _____, 「꿈꾸는 인큐베이터」. 『'93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4』, 현대문학, 1993, 21-72.
- _____,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박완서 소설전집 15)』. 세계사, 1999, 9-167쪽.
- _____, 『아주 오래된 농담』. 실천문학사, 2000.
- _____, 『박완서, 문학의 뿌리를 말하다』.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 _____, 「해산바가지」. 『모든 것에 따뜻함이 숨어 있다: 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지식하우스, 2011, 132-168쪽.
- _____, 『박완서의 말: 소박한 개인주의자의 인터뷰』. 마음산책, 2018.
-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민음사, 2016.
- 최인호, 「山門」. 『'93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4』, 현대문학, 1993, 354-397쪽.

2. 단행본

- 성과재생산포럼 기획,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후마니타스, 2018.

Felski, Rita, Beyond Feminist Aesthetics: Feminist Literature and Social Chan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3. 논문

- 강진욱, 「소설 『82년생 김지영』에 나타난 랑시에르의 '문학의 정치'와 그 한계」. 『정치사상연구』 제25집 제1호, 2019, 180-204쪽.
- 김경희, 「꿈꾸는 인큐베이터의 담론 분석과 의미 해석」. 『비평문학』 제32집, 2009.

49-71쪽.

김미경, 「낙태 담론과 페미니즘 욕망의 문학적 형상화: 아이헝어의 『거울이야기』와 박완서의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을 중심으로」. 『혜세연구』 제23집, 2010, 185-202쪽.

김보경, 「『또 하나의 문화』의 여성시에 나타난 ‘차이’라는 여성 연대의 조건과 가능성」.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0집, 2020, 119-151쪽.

김양선,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 연구: 1980년대 여성문제 소설 다시 읽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4집(16권 1호), 2012, 215-234쪽.

백영경, 「성적시민권의 부재와 사회적 고통: 한국의 낙태 논쟁에서 여성 경험의 재현과 전문성의 정치 문제」. 『아시아여성연구』 제52집 제2호, 2013, 43-71쪽.

양현아, 「여성의 임신중결권리의 필요성과 그 함의」. 『생명윤리』 제7집 제1호(통권 제13호), 2006, 15-33쪽.

_____, 「의료법상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사회과학적 의견」. 『서울대학교 법학』 제50집 제4호, 2009, 1-34쪽.

_____,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한국여성학』 제26집 제4호, 2010, 63-100쪽.

_____, 「낙태죄 헌법소원과 여성의 ‘목소리」[2]: 법과 낙태실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21집 제1호, 2018, 213-260쪽.

우혜란, 「낙태아 천도제와 여성」. 『종교와 문화』 제17집, 2009, 133-173쪽.

정고은, 「2015-2016년 페미니즘 출판/독서 양상과 의미」. 『사이間SAI』 제22호, 2017, 167-198쪽.

정영자, 「90년대 여성소설의 특성연구: 양귀자, 공지영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15집, 2001, 333-398쪽.

후쿠시마 미노리, 「『82년생 김지영』에 열광한 일본 독자들,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문화과학』 제102집, 2020, 177-201쪽.

허윤, 「광장의 페미니즘과 한국문학의 정치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9집 제2호, 2018, 123-151쪽.

Chun, Heeran and Monica Das Gupt, “Gender discrimination in sex selective abortions and its transition in South Korea,”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Vol. 32 (2009), pp. 89-97.

Gillette, Meg, “Modern American Abortion Narratives and the Century of Silence.”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Vol. 58 No.4(2012), pp. 663-687.

Yang, Haewon. *Lived Gender in the Confucian Culture of Korea: Lives of Park Wansuh(1931-2011) and Gong Jiyoung(1963-)*. Doctoral Dissertation,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17.

Yun, Ch'oe, "Late twentieth-century fiction by women," in Peter H. Lee ed., *A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481-496.

4. 사이트

김효선,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여성신문》, 2011년 1월 28일자(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70). 최종검색일 2021년 3월 15일.

한겨레신문, 「'호주제 폐지' 이뤄낸 여성계 원로 100인, 낙태죄 전면 폐지 나섰다」, 2020년 9월 27일자(www.hani.co.kr/arti/society/women/963810.html). 최종검색일 2021년 3월15일.

5. 기타

고정희·김숙희·박완서·엄인희·조옥라·조혜정·정진경·조형, 「페미니즘 문학과 여성운동」. 『또 하나의 문화』 제3호, 1987, 14-29쪽.

김고연주, 「우리 모두의 김지영」. 『82년생 김지영』 작품 해설, 민음사, 2016, 179-190쪽.

김선혜, 「분단사회 여성운동의 역사와 과제: 호주제 폐지에서 낙태죄 폐지까지」. 『(故)이이효재 교수 추모 및 재출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2021, 69-79쪽.

김윤식, 「심사평: 중편 형식과 균형 감각」. 『'93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4』, 현대문학, 1993, 498-499쪽.

박완서·박혜란·조혜정·김혜순·장필화·박일형·김성례, 「살아남기 위한 말, 살리기 위한 말」. 『또 하나의 문화』 제9호, 1992, 23-51쪽.

국문초록

이 연구는 리타 펠스키(Rita Felski)가 논한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feminist counter-public sphere)과 여성 문학의 관계를 바탕으로, 호주제 폐지로 이어진 20세기 말의 페미니스트 정치 공간에서 여성 운동과 여성 문학의 관계가 긴밀했던 것과 달리, 낙태죄 폐지 운동이 일던 2010년대에는 그러한 관계가 파악되지 않는 현상에 주목한다. 여성의 낙태 경험을 드러낼 언어의 부재가 지목되는 가운데서도 동시대 여성 문학보다는 오히려 박완서와 공지영의 과거 서사가 소환되는 현상을 논하며 그 이유를 추적한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경험 언어가 풍부하기 위해서는 여성 문학이 여성운동으로 환원되지 않아야 함을 주장하며, 여성 이슈가 초국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앞으로 한국 여성 문학도 글로벌 번역 문학의 차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투고일 2021. 3. 23.

심사일 2021. 4. 27.

게재 확정일 2021. 5. 14.

주제어(keyword)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Feminist Counter-Public Sphere), 한국 여성 문학(Korean Women's Literature), 낙태 서사(Abortion Narrative), 박완서(Park Wansuh), 공지영(Gong Jiyoung)

Abstract

Mediating Women's Experiences and Feminist Counter-Public Sphere: Abortion Narratives of Park Wansuh and Gong Jiyong Yang, Haewon

Drawing on the relation between feminist counter-public sphere and feminist literature discussed by Rita Felski, this study explores the reason why there seemed to have been no such relation in the feminist counter-public sphere of the 2010s as it fought for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In contrast to the late 20th century when there was a dynamic relation between women's movement and women's literature, in 2010s, due to the lack of language for expressing women's experiences of abortion, narratives of Park Wansuh and Gong Jiyong are revisited. As I analyze the abortion narratives of Park Wansuh and Gong Jiyong I call for the need to keep a constructive tension between women's literature and feminist politics. I conclude by suggesting that as women's issues, including abortion, have become transnational, Korean women's literature also needs to be studied in relation to global translation literature.